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산림치유 체험하세요”



산림치유지도사 3명 배치...12월까지 프로그램 운영 숲속 명상·숲속 요가·우드랜드 산책로 걷기 등 구성

장흥군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2022년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울창한 편백나무 아래서 체험객들에게 몸과 마음에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한 다. 군은 산림복지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해

당 분야 전문가인 산림치유지도사 3명을 배치해 올해 12월 15일까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표 프로그램은 숲속 명상, 숲속 요가, 우드랜드 산책로 걷기, 숲속 해먹체험 프로그램 등 실의 프로그램과, 다담나누기, 아로마 오일 천연방향제, 모기퇴치제 만들기 프로그램 같은 실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 외에도 계절별, 연령별, 참여자 유형별로 각기 다른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우드랜드를 방문해주는 탐방객에 최고의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숲 치유센터(☎ 061-864-3265) 또는 장흥군 산림휴양과 우드랜드관리팀(☎ 061-860-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김도영 기자

해남군, 미니단호박 체지방감소 인체적용시험 추진 농식품부 공모 선정...지역 특산물인 미니단호박 기능성원료 등록 가시화



원 융복합 기술지원 등 공모사업 2건이 선정되는 등 관련 분야에 독보적인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해남 단호박 분말 동물 임상 효능평가에 관한 연구를 실시, 미니 단호박 분말을 섭취한 비만 유발 동물에서 식이 섭취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과 지방조직 무게가 유의적으로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저항전분은 인체 내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위장관의 하부를 거쳐 대장에 들어가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인체 내에서 느리게 대사되어 소화 가능한 전분의 흡수를 방해하면서 당뇨와 비만 예방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기능성 식품 소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인체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국내 농산물 유래 미니단호박 기능성 소재가 기능성 식품원료 및 기능성 표시식품제도 원료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가 소득향상은 물론 성공적인 산업화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남군은 300여농가에서 80ha 면적의 미니 단호박을 재배, 연간 2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기능성 식품 개발을 통해 5배 이상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지역 농산물인 미니단호박 등을 활용한 농특산물 기능성 소재 연구개발이 기능성 식품원료 등록에 성공 다가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기능성 식품 개발, 인적·물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산업간 융복합화로 농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강진읍 전통시장 주차장, 주차타워로 새단장 4월 30일까지 임시 무료 개장...5월 1일부터 1, 2층 유료, 3층 무료 개장



지난 29일 강진읍 오일시장 주차장에서 강진읍도시재생뉴딜사업 주차타워 개장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승욱 강진군수와 군의회 의

원, 도의회 의원, 전통시장 상인회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개장되는 주차타워는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로 총 사업비 2,949백만 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군은 2018년 8월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그해 12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완료한 후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해 1월 주차타워 공사에 착공하고 올해 3월 준공했다. 주차타워는 강진읍 동성리 192-9번지, 구 전통시장 주차장 위치에 연면적 2,222㎡, 3층 높이로 옥상면까지 총 91면 규모로 조성됐다. 4월 30일까지 임시 운영하고 5월부터 정식 개장한다.

임시 개장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5월 1일부터는 1층과 2층은 유료, 3층 옥상은 무료로 운영된다. 다만, 강진 장날은 1, 2, 3층 모두 무료로 개방한다. 한편, 주차타워 맞은편에는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를 완료해 5월에 착공 할 예정이다. 어울림센터는 99석 2개관 규모의 작은영화관, 헬스케어실, 창업 준비실, 평생학습실 등이 한곳에 들어서는 종합 커뮤니티 시설이다. 센터 이용객과 시장 방문객들의 수요를 고려해 주차타워 위치가 선정됐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시작

내일까지 비대면 접수도 가능...5월말까지 농지 소재 읍·면사무서 신청

진도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 대상은 2016~20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전업

농,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 이상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농어업경영체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4월 1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사항이 없는 농가·농업인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오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